

# 광주 국가시데이터센터 슈퍼컴 '세계 톱 500' 새롭게 이름 올려

국제 슈퍼컴퓨팅 콘퍼런스 발표  
한국 슈퍼컴 종합 성능 세계 10위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내 핵심시설인 '국가시데이터센터'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톱(Top) 500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터 국가별 종합 성능 순위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일 "한국이 슈퍼컴퓨터 국가별 성능 순위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슈퍼컴퓨팅 콘퍼런스(ISC 2024)'에서 발표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톱(Top) 500' 국가별 순위에서 213.1페타플롭스(PFlops)의 실측 성능으로 10위를 기록했다. 1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슈퍼컴퓨팅 분야 콘퍼런스는 매년 상·하반기에 독일과 미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에도 성능 기준으로 10위(186.4PFlops)였다.

특히 이번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톱(Top) 500'에는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국가시데이터센터'가 새롭게 등재됐다.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 장착한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총연산량 88.5페타플롭스(PFlops), 저장용량 107페타바이트(PB) 규모로 구축돼 짧은 시간에 방대한 데이터의 딥러닝(심층학습)·분석·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속기의 3분의 2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으로 구성돼 있으며, H100을 이용한 서비스는 아시아 최조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특히 초거대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가속기 'H100'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도입한 덕분에 관련 연구는 물론 수많은 AI기업 지원도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1000여 개의 AI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AI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비용의 연산자원과 저장공간 및 개

발환경을 제공 받고 개발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슈퍼컴 국가별 보유 대수 기준으로는 총 13대로 7위를 차지했다. 또 기기별 순위로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의 '엘캡틴'이 신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실측 성능 1742엑사플롭스(EF)로 1초에 174.2경 번 연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슈퍼컴 중에선 카카오의 카카오클라우드(41위)와 SKT의 타이탄(Titan)(63위)이 지난번보다 순위가 올랐으며, KISTI의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실측 성능 13.9PFlops로 92위를 기록했다.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이번 슈퍼컴 순위 평가에서 총연산량 88.5페타플롭스(PFlops) 중 순수 'H100'만 탑재한 고성능 컴퓨팅(HPC) 기능을 담고 있는 '20PFlops'만 반영돼 98위를 기록했으며, 88.5PFlops를 모두 적용할 경우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 밑반찬 지원 '맛있게 드세요'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방세 고액체납자, 광주 231명 79억원·전남 308명 136억원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 강화 계획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자는 광주 231명(법인 95개, 개인 136명), 전남

308명(법인 117개, 개인 191명)이다.

체납액은 광주 79억원, 전남 136억원 규모다. 광주 체납 최고액은 도매·소매업자로 지방소득세 4억 6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남에서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납부한 5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서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개발 김 '햇바디 1호' 위판가 최고액

120kg에 108만원... 기존 잇바디돌김 2배에도 주문량 폭증

전남도가 자체 개발한 김 종자 신품종 '햇바디 1호'가 위판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맛, 질감 등에서 우수한 '햇바디 1호'를 찾는 김 양식어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진도위판장에서 '햇바디 1호'가 108만원(1자루 120kg)에 거래됐다. 이는 기존 잇바디돌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햇바디 1호'는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업체를 선별 육종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2023년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에 부착율이 높다. 또 잇바디돌김의 특징인 염체의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염체의 성장이 빨라 채취 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효과도 좋다.

잇바디돌김은 김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해 곱창김으로 불린다. 서남해에서 양식되는 토종 품종이다. 김 생산 기간 중 가장 먼저 생산되며 오독거리는 식감과 맛이 좋아 가격도 가장 비싸다. 하지만 생산 기간이 짧고 채묘가 어려우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신품종 '햇바디 1호' 개발로 이같은 문제점이 해

소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 양식 김 3종류 모두를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무늬김 2종(해풍1호·해풍2호), 모무늬돌김 2종(해모돌1호·신평1호)과 잇바디돌김인 햇바디1호의 등록으로 총 5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고 있다.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생산하는 전남도는 2011년부터 어가에 보급한 '해풍1호'로 김 생산량을 늘려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인 김 수출이 8억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김 신품종 종자의 보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로 풀이된다.

김충남 원장은 "어업인 소득이 더 늘도록 고부가가치 브랜드 김 생산을 위해 급변하는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 양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책임 회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불공정 조항 무더기 적발  
수집정보 제3자 공유 등 부당 판단  
이용자 콘텐츠 처분 권리도 명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 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동시에 알리·테무로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리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귀하가 SNS 계정에 저장하고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0월 15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 회사에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주식회사 해민전력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길 26-4  
청산인 하원형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4일 임시주주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 회사에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리딩이노베이션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46, 2층 일부(봉선동)  
청산인 미합중국인 정상미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영조가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촌리 산 138-74, 76  
2. 개장기수: 2기  
3. 개장사유: 토지 활용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표자 관리에 따라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관리자: 남도 광역유족회  
7. 관리기간: 영조가로부터 5년  
8. 신고처: 토지소유자 정병진 010-5448-8958  
9. 신고방법: 분묘 영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복부,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10. 기타사항: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11월 21일  
위공고인: 정병진

###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용택(500510-1XXXXXX)  
• 최후주속: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245, 204동 503호 (원곡동, 대림2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용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무원 2024년 단 3742호 신청하여 2024년 11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21일  
• 상속인: 1. 이정민(580521-2XXXXXX)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245, 204동 503호 (원곡동, 대림2차아파트)  
2. 김민재(090706-2XXXXXX)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146-3, 301호 (하남동)  
3. 김민정(880905-2XXXXXX)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1130호 (천호동, 힐탑프라자)  
• 신고기간: 2024. 11. 21. ~ 2025. 1. 3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이정민의 주소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4년 11월 20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700,000,000원을 금 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자본감소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0.014285714주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70,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함.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또한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주식회사 주민연지나이어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3층(연제동)  
대표이사 조민주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장명희(720809-2XXXXXX)  
• 최후주속: 정읍시 신대인읍 호남청로 32-13, 102동 1201호(주공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진교리길 5796  
피상속인 망 장명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년 단646호로 신청하여 2024년 11월 1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21일  
• 상속인: 1. 신성복(690208-1XXXXXX)  
2. 신민우(050607-4XXXXXX)  
정읍시 신대인읍 호남청로 32-13, 102동 1201호(주공아파트)  
• 신고기간: 2024. 11. 21. ~ 2025. 1. 3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2의 주소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658
동구	• 오 266-7601	• 용 433-1503	• 유 신 433-1503		
남구	• 남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총 청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61-1833	• 봉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광주	• 광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광안	• 광 안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진	• 윤 남 952-1687	• 월 광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